

한화케미칼, GDR로 3500억원 확보

발행 목표액 2배인 8억달러 청약 몰려 ... 할인율 7.18%로 성공적 발행

한화케미칼(대표 방한홍)은 3억4000만달러(약 3534억3000만원) 상당의 해외주식예탁증권(GDR)을 발행한다고 4월25일 발표했다.

1GDR당 원주 1주로 전환되며 발행된 GDR은 발행 기준가격에서 7.18% 할인된 주당 15.7달러로 총 2165만 6060주이다.

한화케미칼은 GDR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 3억4000만달러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하며 시설자금 239억원, 운영자금 1580억원, 기타자금 1억715억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GDR 발행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11%에서 23%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폭넓은 해외투자자를 기반으로 태양광 등 해외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할인율 7.18%를 다른 GDR 발행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4월14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홍콩, 런던, 뉴욕, 보스턴 등에서 2주 동안 60곳 이상의 해외 투자사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했으며 63%가 청약에 참가했다.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는 “발행 목표금액의 2배가 넘는 8억달러의 청약이 몰렸다”며 “그동안 투자의 걸림돌이 되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앞으로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화케미칼은 2010년 말부터 2013년까지 미래 성장동력인 태양광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수익성이 낮아졌지만, 태양광 사업이 2014년 1/4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4/25>